

한일시사만화번역의 시각이미지 은유와 번역 제약 - 시사만화의 기호학적 특성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박 미 정
(한국외대)

I. 들어가기

1.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만화는 그림 이미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다”(한국언론재단 2000: 14). 물론 시각적인 이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언어적 메시지가 대부분 동반되지 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만화의 수사학적 무기는 시각 기호가 주축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사만화는 매일 일어나는 뉴스에 대한 다양한 작자의 의견을 축약하여 시각적인 메시지로 재현한다. 이러한 “시각적 메시지의 재현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관념에 대한 유사성 혹은 추상성에 근거하여 작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 추상성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메시지/의미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가리킨다”(같은 책: 14). 이처럼 시사만화는 복잡한 이슈를 시각적인 은유로 간결하게 승화시켜 독자들에게 풍자와 해학

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만화의 그림 텍스트는 사진에 의존하는 사실주의적 저널리즘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재현하는 도상적 성질을 많이 갖기 때문에, 모호하고 불명료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애매함과 간접성은 은유의 수사학적 가치이면서, 동시에 시사만화의 독자에게는 비록 그것이 자의적인 해독이 될지라도 저자가 의도하는 내포적인 의미(connotation)를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행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기호들처럼 이미지는 사회적인 코드 속에서 유통되고 해석된다. 이 해석 과정에서 해석체는 이미지를 실체로서의 기호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해석을 시작한다. 이러한 2차 해석과정에서는 해석자의 개인적인 경험세계와 배경지식 등이 모두 투입되면서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 이 때 해석자의 경험세계나 배경지식은 사회적인 맥락을 의미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공통의 문화를 공유한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2차 해석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시사만화의 저자는 이러한 공통의 사회적인 맥락을 전제로 독자가 하나의 이미지에서 여러 다양한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문맥적인 가정 하에 시각적인 은유를 사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사만화의 시각적 이미지 해석의 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부사항, 그 사람의 성장배경, 환경,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지식, 역사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유추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우화에 대한 지식 등은 시사만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암시 또는 정치적 일상을 담은 시사만화의 시각적 이미지가 뜻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Carl 1968: 533)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 공유를 전제로 하는 시사만화 텍스트의 그림 이미지는 번역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호의 문자적인 의미(literal meaning)의 기저에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해야하는 은유의 경우에는 번역의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사만화의 시각이미지 은유와 번역제약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인

터넷 판 일간지의 시사만화 번역은, TT(target text)독자들이 그림과 문자기호로 이루어진 시사만화의 ST(source text)를 함께 보면서 의미작용을 한다. 따라서 TT독자에게 ST의 시각이미지는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 TT 독자들에게 생경한 ST의 시각이미지는 번역가에게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시각이미지는 문자기호와 그림기호 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의 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번역에서 그림기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시각이미지의 해독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기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상관관계 이론(relevance theory 이하 RT)¹⁾에서 말하는 ST와 TT의 관련성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티姆(Hatim) 역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을 시각적으로 재현된 언어(graphically representational language)”로 칭했다(Poyatos 1997: 49). 그녀는 “시각적인 재현행위가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하고 번역자에게 있어 특별한 번역문제(계약)에 직면하게 한다”고 보았다(같은 책: 49).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고찰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시사만화번역에서 시각적인 은유이미지가 번역에 있어서 어떻게 제약으로 작용하고 문자텍스트 은유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번역계약을 극복하기 위해 번역가는 어떤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 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재 온라인상에서 한일시사만화번역이 게재되고 있는 일간지는 조선일보의 1칸 만평과 동아일보의 4칸 만화 2가지다. 그 중 조선일보의 1칸 만평은 문자언어뿐만 아니라 그림이미지까지 도착어로 번역해주는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그림이미지의 제약의 양상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번역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대상을 그림이미지가 번역되는 조선일보의 1칸 만평으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연구범위는 시사만화라는 점을 감안해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시각이미지의 은유가 두드러진 것으로 제한했다. 앞서 상술한 연구문제를 모리스(Morris 1938)²⁾가 분류한 기호학

1) 이론적 배경 참조

적 층위 중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시사만화의 시각적인 은유와 문자적인 은유를 소쉬르가 말하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서 추출해낼 것이다. 그런 후에 문자적인 은유와 그 은유가 지시하는 그림이미지와와의 관계가 외연적인 지시(denotative reference)인지 내포적인 지시(connotative reference)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림이미지가 문자은유를 외연적으로 재현한 경우와 내포적으로 재현한 경우를 각각 비교하고 기호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TT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II. 이론적인 배경

1. 시사만화의 기호학적인 특성

만화는 그림과 문자기호로 된 텍스트이다. 특히 정치와 사회를 풍자하는 시사만화는 극도로 생략된 도상³⁾적 기호(iconic semiotic)를 통해서 침체되거나 부패한 정치/사회를 풍자하고 조소하면서 독자들의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 만화의 그림과 문자는 모두 도상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만화의 그림은 대부분 도상 기호로 되어 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림도 그 안에는 높은 밀도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문자 텍스트가 결합된 시사만화는 전체적으로 서사형식을 띄는데 문자 텍스트 부분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것은 그림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제한한다. 이것은 바르트가 말하는 의미를 고정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그림텍스

2) 이론적 배경 참조

3) 퍼스는 기호를 상징(symbol), 도상(icon), 지표(index)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상징은 기표와 기의 사이에 아무런 유사성이 없으며, 자의적이고 관습적이다. 즉 학습을 하지 않으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숫자, 모스부호, 교통신호 등이 있다. 도상은 기표와 기의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초상화, 만화, 의성어, 은유 등이 있다. 지표는 물리적으로나 인과 관계의 형태로 기표와 기의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연기, 천둥 등의 자연기호나 통증, 발진 등의 의학적인 증상 등이 속한다”(Chandler 2002: 37).

트의 시각기호는 언어기호와 달리 의미의 경계가 모호해서, 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 이러한 시각기호의 잠재적 다의성(polysemy)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그림텍스트에는 ‘자세한 설명’이 언어텍스트의 형태로 따라 다닌다. 또한, “만화에서는 엄청난 생략이 대상체에 가해지고, 선택된 특징만이 눈에 띄게 과장, 왜곡, 각색되어 만화 위에 오른다. 만화는 만화 독자로 하여금 외시 의미의 세계를 서둘러 떠나게 하고, 함축과 신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김경용 2005: 276). 이러한 시각기호의 응축된 이미지는 TT독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번역가의 개입여부에 따라 독자의 해독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은유와 내포

은유로 대표되는 비유적인 언어는 테렌스 홉스에 따르면 “ ‘겉과 속이 다른 언어’로서 ‘문자적인 언어(literal language)’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문자적인 언어는 외연적 의미만을 담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간주되는 언어를 지칭한다”(Hawkes 1972: 1). ‘비유’는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옮겨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비유가 구성되는 수사학적인 약호가 통용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유는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해준다. 은유 등의 수사어구는 어떤 기호로부터 추출한 기표에 다른 기호에서 가져온 기의를 결합시켜 새로운 기호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표는 다른 기의를 갖게 되고, 이처럼 새로 이식된 기의는 기존의 기의를 대체하게 된다. (Chandler 2002: 125)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은유를 예로 들어보면, ‘여행이다’라는 기표는 ‘푸른 평지처럼 평탄한 인생도 있는가 하면, 높고 험한 산처럼 험겨운 인생일 수도 있

4) 롤랑바르트는 ‘정박(anchorage)’의 개념을 도입했다. 텍스트의 (사진 설명 등의) 언어적 요소가 사진의 의미를 특정한 영역 안에 ‘댛처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으로 이미지가 모호한 텍스트의 의미를 고정시킬 수도 있다) (Chandler 2002: 244).

다’ 또는 ‘마라톤처럼 길게 봐야하는 여정’등 많은 기의의 다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의의 다의성이 담화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기호학적으로 보면 은유는 어떤 기의가 기표로 작용해서 또 다른 기의를 낳는 것이다. 문학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은유는 내용(tenor)이 전달수단(vehicle)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Richards 1936, 박우수 옮김 2001: 89). 상기 예에서 ‘인생’이라는 내용은 ‘여행’이라는 전달수단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인생’을 ‘여행’에 치환시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유는 보통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은유는 기표의 기저에 숨어 있는 기의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지만, 이 추가적인 노력이 독자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은유기법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비밀상적인 것일수록 독자들에게 더 많은 상상력과 추론을 요구한다.

3. 시사만화에서의 은유의 시각이미지와 번역 제약

“시사만화는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개념적 환유와 은유를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양태영, 이정화 2006: 44). 시사만화에서는 풍자의 묘미를 높이기 위해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텍스트에도 광범위하게 은유적인 수사기법이 사용된다.

만화는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과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은유(메타포)의 활용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만화에서는 필수적인 표현법이다.
(한국언론재단 2000: 21)

시사만화에서의 은유는 스테레오타입의 문구나 상투적인 그림일수록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메시지 전달 효과도 극대화되지만, 이러한 상투적인 이미지를 약간 다르게 비틀어야만 풍자적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자들의 예상에 허를 찌를 수 있는 촌철살인의 웃음이야말로 시사만화의 ‘메타언어’적인 기능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을 비틀어서 재현해놓은 시사만화의 풍자와 해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풍자와 해학을 구성하는 사회적/문화적 약호를 공유해야만 한다. 시각적인 은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경험한 이미지를 동원해서 추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형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호텍스트⁵⁾의 프레임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은유를 사용할 때 독자들이 자신들의 스키마를 통해서 은유의 외연적인 의미와 함께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하기를 기대하고, 공유된 약호와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맥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사만화에서 그림텍스트의 은유적 표현은 문자텍스트를 통해 다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미작용을 한정하고 제약하고 있다. 이는 그림텍스트에 대한 번역방식에 따라서는 문자텍스트와 그림텍스트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ST의 은유가 TL문화에서 충돌할 경우, 은유의 이미지를 버리고 외연적인 의미만을 번역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그림의 이미지와 TT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ST의 그림텍스트가 TT번역텍스트에 그대로 보존되는 온라인상의 시사만화번역에서는 ST그림의 이미지까지 고려하면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자텍스트 은유번역보다 더 많은 제약이 예상된다.

4. 은유 번역

뉴마크(Newmark)는 은유를 다음 4가지 요소와 함께 제유를 구성성분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제유의 개념을 은유에 포함시켜서 기술하므로, 제유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 (a) Object-은유에 의해 기술되는 항목(비크맨과 칼로우(Beekman & Callo 1974)은 이것을 ‘topic’으로 설명하고 있다)
- (b) Image-object를 기술하는 말에 의해 떠오르는 항목(리차드(Richards)는 ‘vehicle’이라고 했다)
- (c) Sense-리차드가 말하는 ‘tenor’이며, 비크맨과 칼로우가 말하는 “point of similarity”인데, 이것은 사물(object)과 이미지가 닮았다는 특별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 (d) Metaphor-이미지로 인해 사용되는 단어(들).
(Newmrk 1982: 85)

5) 바흐친의 논의를 바탕으로 크리스테바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텍스트는 인용의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텍스트의 흡수이자 변형임을 강조한다(Kristev 1986: 237).

예를 들면, ‘사랑은 갈대다’에서 대상물(object)=‘사랑’, 이미지(image)=‘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은유(metaphor)=‘갈대’, 의미(sense)=‘쉽게 변하다’, ‘믿을 수 없다’ 등으로 각각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은유의 번역절차를 우선순위에 따라 ST의 이미지와 TT의 이미지가 같은 경우(M→M), ST와 TT의 이미지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경우(M→M'), 은유를 직유(simile)로 바꾸는 경우(M→S), 은유를 직유로 바꾼 후에 의미를 설명(describe)하는 경우(M→S+D⁶), 은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M→D), 은유를 생략하는 경우(M→φ), 은유를 은유로 설명하고 부족한 이미지를 보충하는 경우(M→M+D)로 분류하고 있다(같은 책: 88-91). 각각의 예를 은유에 대한 한일번역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선 M→M의 경우는 ‘한줄기 희망의 빛’을 ‘一筋の希望の光’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옮긴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 ST의 은유는 TT에서도 같은 이미지로 남아 있다. M→M'의 경우는 ST의 은유의 이미지는 달라지더라도 TL문화에서 관습화되어 있는 같은 의미의 M'을 찾아서 번역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발이 넓다’를 일본어의 ‘顔が廣い’ (얼굴이 넓다->발이 넓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발’이라는 이미지는 ‘얼굴’이라는 이미지와 다르지만, TT독자들은 ‘顔が廣い’ (얼굴이 넓다)를 ‘발이 넓다’로 인식한다. 즉 의미적인 등가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은 한일번역에서는 거의 드문 경우이지만 은유를 직유로 바꾸는 경우의 예를 생각해 보자.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다’라는 은유는 한국문화에서는 일상적인 은유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지만 일본문화에서는 일상화된 은유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관광산업이 무공해산업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도록 観光産業は煙突のない工場のようにだ(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과 같다)로 번역함으로써, TT독자들의 낯선 느낌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M→S보다 ST의 은유가 TT에서 더 생경하게 인식될 경우에는 M→S+D번역전략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문어발 경영’을 ‘蛸の足のようにむやみに事業を擴大する経営’ (문어발처럼 방만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영)이 있다. M→φ는 “은유가 과잉요소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6) D->Describe의 약자

때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은유의 생략은 은유의 기능이 텍스트의 다른 곳에서 채워질 수 있다고 여겨질 때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경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91). 마지막으로 $M \rightarrow M+D$ 는 ST의 은유를 TT에서 축어적으로 번역한 후에 인식의 간극을 주석 등을 이용해서 메우는 번역전략이다. 이렇게 은유번역에서 번역가는 의사소통 번역을 할 것인지, 의미론적 번역을 할 것인지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번역사가 문장의 이미지와 의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우선 이러한 비유적인 언어가 똑같이 TL에서도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두 번째로 얼마나 번역가가 생각하기에 그 이미지가 의미적으로 중요하고 표현적인가를 고려해야한다. 만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번역가는 비유적인 언어를 의사소통적으로 번역하면 된다. (같은 책: 49)

5. 기호학과 화용론

5.1. 기호학적 층위의 화용론

미국 철학자 모리스는 기호학의 연구영역을 세 가지 분야로 구별하였다. 먼저 기호들 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구문론(syntax), 그리고 기호와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물(objects)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미론(semantics), 마지막으로 기호와 해석자(interpreters)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화용론(pragmatics)으로 구분했다(Levinson 1983: 1-5). 다시 말해, 기호학의 관점에서 사용자들의 기호해석은 세 가지 다른 단계를 갖는 다는 것이다. 구문론적 단계에서는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호를 인식하고, 의미론적 단계에서는 기호를 통해 의도된 의미를 이해하고, 화용론적 단계에서는 기호의 관련성 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해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호가 무엇을 재현하는지 외연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둡과 메이슨 역시 기호학은 기호의 통사적, 의미론적 그리고/ 또는 화용론적인 특징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녀들은 주어진 기호의 기호학적인 기술이 다음과 같은 관계 중에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통사적 관계-이것은 같은 통사 구조 속에 포함되는 하나의 기호와 다른 기호들 간의 관계.

- 2) 의미론적 관계-기호와 기호가 지시하는 실제세계에서 기호가 가리키는 실체들(entities)과의 관계.
- 3) 화용론적인 관계- 기호와 기호의 사용자들 사이의 관계(senders or receivers). (Hatim & Mason 1990: 116-117)

하티姆과 메이슨은 번역에 있어서도 기호학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가는 원문텍스트를 기호학적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 기호작용은 해당 문화에 독특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오직 사회/문화적인 경계를 가로질러야만 옮겨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번역은 상호기호학적으로 (inter-semiotically)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책: 68). 구체적으로 번역을 할 때 번역가는 기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호학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호학적인 특징은 화용론적, 의사소통적 측면만큼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기호학적인 번역에는 제약이 따르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제약의 예로 은유를 들고 있다. 즉 은유의 기호학적인 의미(status)는 번역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5.2. 번역과 RT

5.2.1. RT

RT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자 화용론에서 파생된 학문⁷⁾이다. 기호 사용자간의 관계를 관련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RT이론을 개략해 보도록 하자. 커뮤니케이션은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관련성 이론의 핵심은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그 발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추론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다. 이 때 청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신적인 노력(effort)을 들이게 되는데, 같은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를 얻기 위한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들수록 그 정보는 관련성이 떨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7) 그라이스는 대화함축모델(Grice, 1975)에서 대화에 있어서의 4가지 협력의 원리를 주장했다. 1.양의격률(The maxim of quantity), 2.질의격률(The maxim of quality), 3.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4.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중 관련성의 격률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RT를 화용론과 분리해서 별도의 학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송경숙 2003: 104-110).

“관련성은 얻어지는 문맥적인 효과 대 지불되는 정보처리 노력(*processing cost-effect*)의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erber and Wilson 1986a: 124-25). 따라서 커뮤니케이터는 명시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할 때마다 청자에게 전달할 암묵적인 가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터는 청자에게 불필요한 정보처리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충분한 문맥적인 효과를 주어야 한다(Gutt 1992: 25). 이것이 바로 RT의 핵심이론인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 개념이다. 청자 입장에서 문맥효과가 높고 정보처리 비용이 낮을 때 그 담화는 최적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자가 최적의 관련성의 조건하에서 얻는 문맥적인 효과는 커뮤니케이터가 의도한 함축적인 정보를 추론을 통해 해석해낸다는 의미이다. 최적의 관련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커뮤니케이터가 청중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련의 가정들은 청중이 명시적인 자극들을 정보처리하기에 충분히 연관성을 갖는다.
 - (b) 명시적인 자극들은 커뮤니케이터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연관성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일련의 가정들로 구성된다.
- (Superber and Wilson 1986a: 158)

이러한 최적의 관련성 이론은 해석적 사용(*interpretive use*)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담화 간에는 의미 또는 추론의 특성에 있어서 서로 닮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유된 의미에 근거한 두 담화간의 닮음을 해석적인 닮음(*interpretive resemblance*)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적인 닮음은 단순히 의미론적인 함축의미(*implication*)를 공유하는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맥 속에서 문맥적인 함축의미를 공유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Gutt 1992: 38). 그리고 “하나의 담화가 해석적인 닮음을 바탕으로 다른 담화를 재현해 내는 경우를 해석적인 사용이라고 한다”(같은 책: 38). 이때 화자가 담화를 재현할 때는 당연히 원문 담화와 그것이 해석적으로 닮아 있을 것이라고 청자가 기대하게 되고, 화자는 자신의 담화가 원천 텍스트에 대해 충분히 충실한 재현을 하고 있다고 보증한다. 이것이 바로 RT에서 말하는 충실성의 가정(*a presumption of faithfulness*) 개념이다.

5.2.2. RT와 번역

구트는 번역에 관련성 이론을 도입하면서 번역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이차적인 의사소통상황(secondary communication situation)⁸⁾”이라고 칭했다 (Gutt 1992: 6). 그리고 그는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문맥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즉 “TT독자가 번역된 텍스트로부터 추정하는 문맥이 너무 달라서 거의 문맥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면 TT독자들은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끝내버리고 싶어할 것이다”(같은 책: 6). 다시 말해 독자들은 충분한 문맥적인 효과가 제공되지 않은 TT에 대해 많은 정보처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읽기를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가가 문맥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축적인 표현들을 일일이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준다고 해서 그 TT에 대한 RT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RT이론에서는 강한 함축과 약한 함축을 구분하면서, 약한 함축의 경우는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이 더 넓어지고 독자는 그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것은 독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함축에 대한 독자의 해석행위는 기호학에서 바라보는 해독자⁹⁾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장 많이 응축하고 있는 것이 은유라고 할 수 있는데, RT에서 은유는 ‘시적인 효과’(poetic effects)¹⁰⁾를 달성해야 하는 언어적인 장치로 강조된다. 은유는 “텍스트를 윤색하기 위해 제

8) RT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차적인 의사소통상황은 첫 번째 장소에서 이 정보가 의미 되어졌던 대상의 독자가 아닌 다른 독자에게 주어진 의도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Gutt 1992: 6).

9) 기호학에서 수신자 혹은 해독자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호학은 ‘수신자’라는 용어보다 ‘해독자’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해독자라는 용어가 보다 많은 능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해독은 독자의 문화적 경험에 의하여 결정된다. 독자는 그들의 경험, 태도 및 감정 등을 텍스트에 끌어들이므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Fisk 1990, 강태완, 김선남 옮김 2000: 88-89).

10) RT에서 시적효과는 공통의 지식이라기 보다는 공통의 인상(impression)을 낳는 것이다. 시적효과를 갖는 발화는 인지상의 상호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서적인 상호성을 낳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생략...) 그리고 이 때 독자들의 여분의 정보처리 노력은 상당히 약한 추론을 통해 얻어지는 문맥적인 효과로 보상받으며, 이러한 문맥적인 효과는 함축에 대한 독자의 믿음의 정도와 명시적인 표현 속에 있는 정보의 문자적인 의미(foregrounding)와 배경(backgrounding)을 탐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uperber and Wilson 1986a: 224).

공하는 형태적인 장치”이기 때문에(같은 책: 20), 번역에서 은유의 형태는 보존되어야 할 기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유의 비언어적인(nonliteral) 함축의미는 명시적이지 않은 표현자체가 독자에게 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번역가는 이러한 시적효과를 보존하기 위한 고민에 부딪히게 된다. 구트는 “RT에 따르면 시적 효과는 전형적으로 청중이 귀납적으로 추론하고 자유롭게 폭 넓은 문맥적인 효과의 범위를 탐험하도록 열어 줄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강하게 암시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강한 인상을 준다”고 강조한다(같은 책: 20). 그러나 이러한 시적 효과가 TT독자에게 발생하기 위한 전제는 문맥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화용론에서 강조하는 문맥은 기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약호나 상호텍스트성과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TT독자들이 은유라는 기표의 입구에 들어가서 기의를 찾아 의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TT독자들의 사전경험이나 배경지식 등이 어우러진 문화체계, 즉 약호와의 반응이 필요하다. 결국 번역가는 은유의 시적효과를 우선할 것인지, 의미전달을 위해 배경지식 등의 상호텍스트성을 제공해주면서 명시적으로 번역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구트는 이러한 번역가들의 고민에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RT에서의 문맥적인 조건에 따르면 원문의 번역가가 해석을 성공적으로 TT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TL(Target Language, 도착어)의 자극들이 저자가 그린 문맥을 이용하면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해석들이 TT독자에게 최적의 관련성을 주지 못한다”(같은 책: 31).

III. 구체적인 분석

번역가에게 있어서 은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번역의 큰 제약과 도전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시사만화나 광고와 같이 시각이미지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은유의 경우에는 번역가가 문자적인 은유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은유의 이미지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적인 은유번역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각이미지의 번역 간섭현상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자텍스트의 은유와 그림이미지와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 1) 문자적인 은유 이미지와 그림이미지가 관련이 없는 경우
- 2) 문자적인 은유의 외연적인 의미가 그림이미지로 재현된 경우
- 3) 문자적인 은유의 내포적인 의미가 그림이미지로 재현된 경우

본고의 연구목적이 시각이미지 은유의 번역제약에 있는 만큼, 1)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시각이미지 번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번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ST의 은유가 TT에 없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번역전략이 ST 은유의 내포적인 의미를 TT에서 설명해주는 M->D인데, ST의 그림은 원문 은유의 외연적인 의미(literal meaning)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RT관점에서 TT독자들은 원문의 그림과 TT의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처리 노력은 증가하지만 문맥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관련성이 가장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장에서는 번역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2)번을 중심으로 예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교를 위해 번역제약이 덜한 3)번의 경우를 먼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문자은유의 내포적인 의미가 시각이미지로 재현된 경우

namidanoshyo-
涙のショー(눈물의 쇼)



Φ'방식은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ST의 그림에는 '싸움닭'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TT에서 그 은유를 살리지 못한다면 TT독자들은 혼란을 느끼면서 정보 처리 노력이 극도로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맥적인 효과 역시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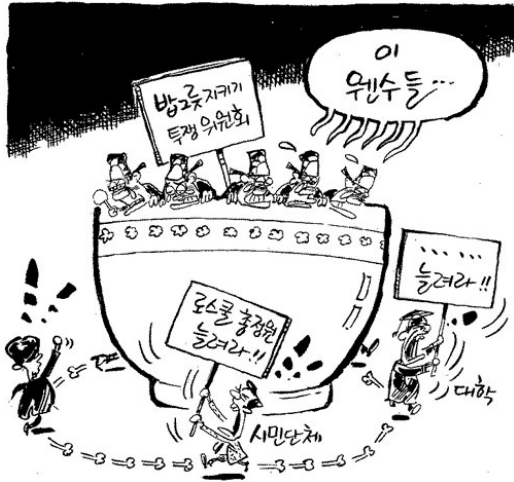
그렇다면 ST의 그림이미지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번역가가 'M→Φ'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1>은 문자은유를 대상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유시민이라는 대상물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싸움닭'이라는 은유로 대체했다. ST에는 '싸움닭'과 관련된 그림 이미지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으나 ST독자들은 '유시민'이라는 정치인과 '싸움닭'에 겹쳐지는 이미지를 선행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공통된 이미지를 통해서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 내게 된다. 즉 ST독자들은 '싸움닭'이라는 문자적인 은유를 '유시민'이라는 등장인물에 대치하면서 '유시민'과 '싸움닭'의 유사점을 찾아내고 추론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해석해낸다. 일반적으로 시각이미지가 동반되는 은유 번역은 ST저자가 그림텍스트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주인공에 대한 조소와 비웃음을 TT독자에게 최대한 전달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림텍스트와 문자텍스트의 은유는 하나로 버무려지면서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메타 언어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에는 '싸움닭'이라는 이미지를 살려줄 수 있는 은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칸 만화의 한일번역은 대부분 문자언어와 함께 그림이미지까지 번역¹¹⁾하고 있는데, 당연히 TT에서는 ST그림텍스트에서 보이는 대로 '싸움닭'의 지시대상인 '유시민'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텍스트의 어디를 보아도 '싸움닭'의 이미지는 없다. 그림텍스트를 통해서 보여 지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장관 사퇴서를 읽고 있는 '유시민'의 모습과 이를 조롱하고 비웃는 시민들의 모습뿐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선불리 '싸움닭'의 은유 이미지를 보충하기 위한 번역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생략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TT독자들에게는 그림이미지와 충돌을 줄이고 정보처리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 한국의 인터넷판 한 칸 만화의 한일번역은 그림이미지를 번역해주는 비언어텍스트의 언어화 번역(verbalization translation)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 문자은유의 외연적인 의미가 시각이미지로 재현된 경우

2.1. 그림은유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

ro-sukurute-ingsengohyakuningan
로스쿨 定員1500人案(로스쿨 정원 1500명안)



<그림2> 조선일보. 2007. 10. 18

kyo-ikuzintekisigenbuga zyu-zhinzhi nisenkunensangazhu kaiko-no ho-gakusenmondaigakuin ro-suku-
 教育人的資源部가 17日、2009年3月開校の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no-shyonendonote-ing wosengohyakutosuru anwo kokainiteishyuzhusitaga ukieirarenakata
 의 初年度의 定員을 1500人とする案을 國會に提出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教育인적자원부가 17일, 2009년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정원을 1500명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imindantaiyadaigakugawaga ro-sukurute-ingwohyase toutaerumaka
 市民団体や大學側が 로스쿨의 定員을 増やせ」と訴える中、「
 komatakaono kyo-ikubukamie-shyatizhi
 困った顔の教育部關係者たち。
 시민단체와 대학 측이 ‘로스쿨의 정원을 늘려라’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저것들...”하며 곤란한 표정의 교육부관계자들.

<그림2>는 문자은유가 그대로 그림은유로 재현된 예이다. <그림2>의 주요 기표는 법조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 그림 속의 ‘밤그릇지키팀투쟁위원회’ 중 ‘밤

그릇'과 법조인들을 성(城)처럼 보호하고 있는 '밥그릇'그림이다. '밥그릇'이라는 문자기호의 외연적인 의미가 그림기호로 표현되면서 은유의 풍자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역시 '밥그릇'의 은유를 뉴마크가 설명하는 구성성분으로 분류해보면, 대상물=(법조인들의) 기득권, 이미지='먹고살다', 은유='밥그릇', 의미='기득권, 자리(post)'가 된다. 그런데 <그림2>의 TT에서는 '밥그릇'이라는 은유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표 전체가 번역되지 않았다. 일본어 문화에서 '밥그릇'에 해당하는 은유표현은 없지만, <그림1>처럼 'M→Φ' 번역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법조인들이 왜 '밥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지 TT독자들은 그림텍스트 해독에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은유의 이미지 번역이나, 의미 번역이나를 논하기 이전에 번역가가 은유에 대한 이해 없이 번역했음을 말해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밥그릇지키키투쟁위원회'는 주요 기표이기 때문에 <그림2>의 기표가치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결코 이 기표에 대한 번역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 기표, 특히 은유가 표현된 '밥그릇'에 대해 외연적인 의미로 번역할 것인지, 내포적인 의미로 명시화해서 번역해줄 지에 대한 번역전략의 선택은 번역가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번역 과정이다. 이렇게 번역의 중요한 기표가 TT에서 생략된 번역은 베이커(Baker 1992)가 제시한 함축적 의미에 대한 번역전략 중 생략(omission)¹²⁾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생략'도 번역가의 전략적인 번역 선택¹³⁾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림2>의 번역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의 기능은 충족시켰을지는 모르나, 저자가 의도한 은유 기능은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ST와 TT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짐을 의미하고, TT독자들에게 원문 그대로 노출되는 '밥그릇' 그림기호에 대한 해독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번역방식이다.

12) 베이커는 함축(implication)에 대한 번역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직역(literal translation), 2. 문화적 대체(cultural substitution), 3. 설명 및 명시화 (elaboration and explication), 4. 생략(omission), 5. 음독(transliteration) (Baker 1992: 71-77, 228-243).

13) <그림1>참조

2.2.M→M'

honeorizon
骨折り損 (헛수고)



<그림3> 조선일보, 2007. 11. 13

hanrarato-noimyonbaku i.myonbaku ko-howakotosikugazhu
한나라당의李明博 (이·미·옌·박) 候補側は今年9月、
busyube-daito-ryotonokaidan yote-wohapy- sitagatazhigienmata
ブッシュ米大統領との會談予定を發表したが立ち消えになった。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측은 올해9월, 부시대통령과의 회담예정을 발표했으나
호지부지되었다.
hanraro-wasarani kongzhuzyu-yoka zhindeze zhin.deze myotozyo-bo-zhu-sinzhyo-kanga
한나라당은さらに今月14日、陳大濟 (친·데·제) 元情報通信部長官が
imyonbakuzine-nigo-ryu surutohapyo-sitaga zhinsigwawakorewo zizizhumukontohite
李明博陣營に合流すると發表したが、陳氏側はこれを「事實無根」と否定。
한나라당은 또다시 올 14일, 진대제전정보통신부장관이 이명박후보캠프에 합류할 것이
라고 발표했으나, 진진장관측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정.
anawohorinagara imyonbakuko-ho-gahitokoto are? kokomozhigaumitai
穴を掘りながら李明博候補が一言。「あれ? こも違うみたい」
땅을 파면서 이명박후보가 한마디. “어? 이것도 아닌 것 같다”
sorewomitakiregaonokishiyatazhi matamadawohoteruyo
それを見て呆れ顔の記者たち。「またムダに掘ってるよ…」
그것을 보고 질려하는 표정의 기자들. “또 쓸데없이 파고 있네...”

<그림3>에서는 ‘삽질’이라는 문자기표에 해당되는 그림기표=‘MB건설’이라

는 건설모를 쓰고 삼질하는 이명박'이다. 즉 문자은유의 이미지가 그림은유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림3>에서 '삼질'은 주요 기표이면서 동시에 저자의 의도가 응축된 은유표현이다. 이 은유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체해보면 '삼질'의 대상물='진대제 영입시도, 부쉬 면담시도', 이미지=힘들여 파다, 은유='삼질', 의미='헛수고'가 된다. 번역가는 이렇게 문자은유의 외연적인 의미가 그림으로 표현된 ST의 경우에는 시각이미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림3>에서 번역가는 '삼질'의 은유기표에 대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M→D'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또 삼질만 했네"→「^{mata}また^{mudanihoteruyo}ムダに掘ってるよ……또 쓸데없이 파고 있네」). 이 때의 설명은 의미 위주의 설명이 아니라 이미지 위주의 설명이다. 즉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명시화전략이 아니라, 마치 그림이미지를 묘사하듯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2>의 그림이미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번역가는 M→D방식을 의미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한 그림이미지와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이미지 위주의 설명을 해줌으로써 '삼질'에 대한 이미지는 TT독자에게도 충분히 문맥적인 효과를 보증해 주게 된다. 한편, 1칸 시사만화에서는 왼쪽 윗부분에 굵은 글씨체로 '주제어'를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3>에서는 주제가 없지만, 번역가는 '삼질'의 의미(헛수고)에 가장 가까운 일본어 은유인 '骨折り損'(헛수고)을 주제로 사용하면서 TT와 ST의 관련성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다. 즉, 번역가는 '헛수고'에 해당하는 '骨折り損'을 TT독자에게 담화해석을 위한 자극(stimula)으로서 제공한 것이다. '骨折り損'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도 손해를 본다'라는 뜻으로 우리말의 '헛수고'에 해당하는 일본어 은유다. 이 은유의 이미지는 '뼈를 깎다'이고 의미는 '헛수고'이다. 따라서 ST의 '삼질'과 이미지는 다르고 의미는 같다. TT독자는 이러한 주제의 보충을 통해, ST 저자가 의도한 해학과 풍자의 메타언어를 해석적인 재현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번역가가 '삼질'의 일본어 은유인 '骨折り損'을 대사 속에서 사용했다면(M→M'), TT독자에게 ST의 '삼질' 이미지에 대한 정보처리 비용은 <그림3>에 대한 번역보다 더 들 것이다. 왜냐하면 TT독자들에게 '骨折り損'의 이미지는 ST의 '삼질'하는 그림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림3>의 번역가는 문자은

유의 이미지와 시각은유의 이미지에 대한 닮음(resemblance)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1칸 시사만화의 구성적인 특성(주제어 등)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관련성의 함을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 대사 속에서는 은유의 시적 효과를 유지하는 등 문맥적인 효과를 TT독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주제어를 통해 은유 이미지를 TT 은유로 명시화 해줌으로써 TT독자들의 정보처리 노력을 최소화해 주고 있다.

3. M→M'이 불가능한 경우



<그림4> 조선일보. 2007. 9. 18

nomuhyondaito-ryo-nosokukin
盧武鉉 (ノムヒョン) 大統領の側近、

zhyonyunzezendaito-ryohuhishyokanno oshyoku zikennikansi
鄭允在 (チョン・ユンジエ) 前大統領府儀典秘書官の汚職事件に關し、

sengezhusanzuyihinzhikara saiso-sasitekita pusanzhikenwa zyu-hazhinzhikoro zhyonzenhishyokanni syuto-womotomruho-sin
先月31日から再捜査してきた釜山地檢は、18日ごろ鄭前秘書官に出頭を求める方針。

노문현대통령의 측근, 정운재전청와대의진비서관의 부정사건에 관해, 지난달 31일부터 재수사해온 부산지검은 18일경 정전비서관에게 출두를 요구할 방침.

kensazhuwa so-sakekasidaidewa zhyonzenhishyokanni so-sazyo-세 se-kyu-suruho-sin toiwareteiru
檢察は、捜査結果次第では鄭前秘書官に逮捕狀を請求する方針と言われている。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정전비서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imamadeosewaninarimasia to nodaito-ryo-ni atamawosage kariteita ahirunoasiwo kaesu
(a) 今までお世話になりました」と(b)盧大統領に頭を下げ、借りていたアヒルの足を返す

zyonzenhishyokan
鄭前秘書官。

(a)“지금까지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며(b)노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빌렸던 오리발을 되돌려주는 전비서관.

re-mudaku (足の不自由なアヒル、 政權末期の權力を喪失した状態、 死に体)

zyo-tainodaito-ryo-ga kanasiso-nahyozyo-^け ukabeteiru.
状態の盧大統領が悲しそうな表情を浮かべている。

레이덕(다리를 저는 오리, 정권말기의 권력을 상실한 상태)상태의 노대통령이 슬픈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림4>에서 ‘오리발’은 핵심 기표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은유이다. 그림 이 미지 역시 ‘오리발’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4>의 ‘오리발’은 많은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응축된 기표이다. 우선 1차적으로 ‘오리발’은 ‘사표’를 대체하고, 2차적으로는 ‘뻔한 거짓말’과 ‘배은망덕함’ 등의 내포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덕을 맞이한 노무현대통령의 도상기호나 청와대를 상징하는 ‘용’대신 그려진 ‘오리’ 기표 역시 도상기호로서 ‘오리발’과 상호작용하면서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¹⁴⁾을 높이고 있다. ‘오리발’이라는 은유에 초점을 맞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은유의 원래 표현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다’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둘러댄다는 뜻이다. ‘오리발’ 은유를 좀 더 상세히 분류해보면, 대상=‘사표’, 이미지=‘미끄러운 발갈퀴’, 은유=‘오리발’, 의미=‘시치미’, ‘뻔뻔한 거짓말’이다.

<그림4>의 주요 기표인 ‘정운재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대사인 ‘그동안 ‘오리발’ 잘 썼습니다...’에서 ‘그동안 ~을 잘 썼습니다’는 한국사회에서 빌리거나 제공받은 물품을 돌려주면서 하는 표현이다. <그림4>의 TT에서는 (a)“지금까지 신세 많이 졌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일본사회에서 조직을 떠날 때나 사표를 낼 때 사용한다. 번역가는 ST의 ‘오리발’에 해당하는 TT의 은유가

14) 보그랑드와 드레슬러는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요소 중에 응집성(coherence)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응집성은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적 연관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미시적 차원의 응집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텍스트의 표층 장치에 재수용이 있다. 재수용은 텍스트에서 앞서 나온 것을 뒤에서 다시 수용한다는 의미로 반복출현, 공지시, 지시 등이 포함된다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2004: 43-63).

없기 때문에, 상사에게 사표(‘오리발’의 지시대상)를 낼 때의 상황에 맞는 일본어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의미론적이나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기호학적인 기호 가치나 RT관점에서 볼 때는 은유 이미지의 훼손을 초래한다. ST의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사표를 낼 때 흔히 사용하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표현 대신에 “그동안 ‘오리발’ 잘 썼습니다”라는 기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가 ‘정윤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집권말기의 ‘노무현 대통령’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데 대한 자괴감과 ‘자업자득’을 조롱하는 야유를 독자들이 해석해 내도록 의도한 자극들이다. 또한 그러한 자극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저자와의 공유된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가 이끄는 방향대로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

이 때 ‘오리발’이라는 기표는 해석자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기의의 다발을 만들면서 무한한 의미작용¹⁵⁾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내포적인 의미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기의뿐만 아니라, ‘오리발’을 갖고 ‘정윤재 전 비서관’이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댔는데 그 오리발의 주인이 다름 아닌 노대통령 것이라는 것이다. 즉 저자는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노대통령에게 있다는 약한 암시를 독자들이 해석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에 대한 해석이야말로 텍스트가 의도한 기호의 가치이며, RT에서 말하는 해석적인 사용¹⁶⁾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오리발’에 해당되는 일본어의 은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지를 버리고 의미(시치미, 뻔뻔한 거짓말)번역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림이미지와 충돌해버리게 된다. 심지어 TT독자들은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실장’이내밀고 있는 것이 ‘오리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처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작용의 원천적인 차단

15) 움베르트 에코는 해석소(interpretant)의 연쇄 작용을 무한한 기호작용(unlimited semiosis)으로 설명했다 (Peirce 1931~58: 1.339, 2.303, Chandler 2002: 31 재인용).

16) RT에서는 해석적인 사용을 2종류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일반적인 해석적인 사용은 오리지널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로 관련성이 달성될 수 있다. 반면, 공명의(echoic) 해석적인 사용은 화자가 마음속에서 의도하고 말하고자 하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청자가 알게 함으로써 관련성을 달성할 수 있다 (Superber and Wilson 1986a: 238).

을 막기 위해 번역가는 다음과 같이 그림이미지를 TT에서 (b) ‘노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빌렸던 오리발을 되돌려주는 전비서관.’으로 번역(M→D)하고 있다. <그림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4>의 TT는 말풍선 속의 대사를 일본어적인 언어사용 체계에 맞추는 대신 그림이미지(non-verbal sign)를 문자기호(verbal sign)로 번역하면서 ST의 ‘오리발’을 외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빌렸던 오리발을 돌려주는). 이러한 보완방식은 1칸 만평번역(한→일)의 규범화된 번역 방식에 기댄 번역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ST와 마찬가지로 떠다니는 그림이미지의 기의다발들을 문자언어로 고정시켜주고 있다. 이로써 대사 속에서 저자가 의도했던 ‘오리발’의 주인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함축의미는 어느 정도 TT에서 보완 되었다. 다만 저자가 지문 속에서 ‘오리발’이라고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것은 ‘오리발’의 기호 값이 오리발의 기호 값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번역문의 ^{ahirunoasi}アヒルの足(오리발)도 ‘^{ahirunoasi}アヒルの足’로 해주었다면 훨씬 더 RT에 충실한 번역이 됐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4>의 경우 ST에서는 ‘문자은유 이미지=그림 은유 이미지’가 일치하지만, TT에는 똑같거나 유사한 은유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문자 은유를 명시화하는 데 제약을 느끼게 된다. 명시화해 놓은 문자은유의 이미지와 그림 이미지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4>에서 번역가는 그림 이미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역전략을 다양하게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번역가는 구트가 말하는 “공명의 사용(echoic use)”을 전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Gutt 1992: 23). 즉 저자가 의도한 담화의 생각이나 태도를 독자가 해석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최대한 의미를 열어두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사용에는 독자의 정보처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호 해독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다만 ST의 은유가 TT에 존재하지 않고 그림 이미지의 제약마저 가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의미 손실과 가중된 정보처리 노력은 시적 효과 달성으로 상쇄될 수 있다.

IV. 나가기

이상 한일시사만화 번역에 있어서 시각이미지은유가 어떻게 번역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모리스가 분류한 기호학적 층위 중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분석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사만화의 문자 텍스트 은유와 그림 이미지와의 관계를 (1)문자적인 은유 이미지와 그림이미지가 관련이 없는 경우와 (2)문자적인 은유의 외연적인 의미가 그림 이미지로 재현된 경우, 그리고 (3)문자적인 은유의 내포적인 의미가 그림 이미지로 재현된 경우로 분류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번역의 제약이 예상되는 (2)번과 (3)번으로 한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자적인 은유가 내포하는 의미, 즉 전달내용으로 표현된 그림이미지는 문자텍스트 은유의 문자그대로의 의미가 표현된 그림텍스트에 비해 번역의 제약이 크지 않았다. 그림이미지 자체가 은유의 속뜻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번역가가 은유를 옮겨주지 않고 은유가 지시하는 대상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생략해도 관련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문자 은유의 외연적인 의미가 그림이미지에 나타난 경우는, ST은유가 TT에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관련성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ST 은유가 TT의 은유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M→M)는 그림의 이미지가 없는 원문이라면 번역제약이 없다. 그러나 시사만화번역과 같이 원문의 그림은 ST의 은유로 존재하고 TT에는 TT 문화권의 은유로 옮긴다면 그림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가는 간단히 ‘M→M’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분석 표본에서는 1칸 시사만화의 주제어(구조적 특성)를 이용해 관련성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ST의 은유가 TT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ST의 그림은 문자텍스트의 외연적인 의미로 표현된 경우는 번역가에게 가장 번역제약이 큰 경우이다. 본 고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그림이미지 번역제약을 해결하지 못해 관련성이 떨어지는 번역의 예를 먼저 소개하고 기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성 등의 번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각이미지까지도 번역해주는 한 칸 만화의 번역방식을 이용해 번역가가 최대한 그림이미지와 충돌을 피하면서 관련성을 달성한 예를 비교 분석했다.

참고문헌

- 강태완, 김선남 옮김. 2001.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John Fiske. 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서울: 민음사.
- 박우수 옮김. 2001. 『수사학의 철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 (I. A. Richards. 1936. *The Philosophy of Rhetoric*. Oxford: Oxford U. P.)
- 송경숙. 2003. 『담화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양태영. 2000. 「시사만화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의미학』 6: 139-170.
- 양태영, 이지영. 2006. 「시사만화의 개념적 환유/은유 분석」. 『언어과학연구』. 38: 43-69.
- 한국언론재단. 2000. 『한국시사만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서울: 박이정.
- Carl, L. M. 1968. "Editorial cartoons fail to reach many readers." in *Journalism Quarterly* 45: 533-35.
- Chandler, D. 2007. *Semiotics: The Basic*. (2nd e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utt, E. A. 1992.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New York: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United Bible Societies.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Hatim, B. 1997. "Discourse features in non-verbal communication: Implication for the translator." in Poyatos, F.(eds): 49-66.
- Hawkes, T. 1972. *Metaphor*. London: Methuen.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 Prentice Hall.
- Superber, D & Wilson, D.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s). Oxfords: Blackwell.

[Abstract]

**The constraints of the Korean and Japanese cartoon translation
due to a metaphor and a picture image**

Park, Mijung

(Hankok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Korean and Japanese editorial cartoon transl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a constraints of translation due to a metaphor and a picture image used in the editorial cartoon. For it, the analysis is limited to the Korean and Japanese translation of one-panel cartoon whose picture image is translated among the editorial cartoons. In the concrete, a relation between the visual image on metaphor and the limitation of translation is analyzed in the aspect of pragmatics among the horizons of Semiotics classified by Morris. The correlation is examined through extracting the key signifier from the letter text that the metaphor is used and the picture text in the editorial cartoon. 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phor symbol which is moved to target text and the limitation of translation of visual image is described focused on a relevance theory. As a result of analysis, when a denotative meaning is reproduced with the visual image among the signified of metaphor whose the original text is the letter text, there is the large constraints of translation on the metaphor.

▶ Key Words: cartoon, visual image, metaphor, denotation, connotation, relevance

박미정

한국의국어대학교

ppsmjj@naver.com

관심분야: 시사만화번역, 기호학, 화용론, 서사, 은유, 시각이미지

논문투고일: 2008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3월 8일